

한국어 학습을 통해 본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사 연구*

최은경(전북대) · 이정애(전북대) · 강미옥(Utah Valley University)**

< 목 차 >

- | | |
|------------------|------------|
| 1. 문제 제시 | 4. 연구 결과 |
| 2. 선행 연구 탐색 | 5. 논의 및 결론 |
| 3.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조선족), 필리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네 명의 생애사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결혼과 이주 과정의 삶 속에서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태도가 이들의 삶에 어떤 전환점으로 작용하고 또 적응하게 하였는지를 추적했다. 그 결과 (1)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 (2) 생존을 위한 한국어 학습, (3) 이중 언어 화자의 체득된 한국어 학습, (4) 영어화자의 소극적인 한국어 학습 등 크게 네 가지 학습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삶 속의 적응도 역시 다르게 실현되었다. 참가자 (1)의 경우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삶으로 확장시켰으며, (2)는 결혼 이후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였으나,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으로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참가자 (3)의 경우, 한국 사회에 조용히 섞여 들어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4)의 경우, 영어 능력을 기반으로 가정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최은경, 교신저자: 이정애, 공동저자: 강미옥

을 이끌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 여성의 삶이 한국어 습득의 양상에 따라 어떻게 전환과 적응을 겪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과 함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는 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생애사, 한국어 학습, 삶의 전환, 삶 속의 적응, 삶의 경험

1. 문제 제기

한국 사회는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가 55만여 명, 결혼이주자가 15만여 명, 외국인 유학생이 13만여 명, 다문화 자녀 또한 22만여 명에 이른다(통계청, 2018).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의 도래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부터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2017년 신고된 21,917 건의 국제결혼 중에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 총 15,153 건으로 61%이다. 이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간 결혼 4,378 건, 20%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통계청, 2018; Sohn & Kang, 2019).

특히 한국 사회는 일정 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들과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목하여 왔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결혼을 매개로 한국에 오랜 기간 정착하여 한국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인 가정을 구성하고 대부분 임신과 출산을 거쳐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그 과정 안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차윤정, 2015; Sohn & Kang, 2019).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같은 언어와 문화

를 유지해 온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내세워 오랜 시간에 걸쳐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 왔다고 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신속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이다(강미옥 2015, Kang 2015). 또한 한국 정부는 다양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내세워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인의 적응과 능력 발휘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고 있다(김동성, 2016).

분명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의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원’의 대상이 아닌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변화되었지만¹⁾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아직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저간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으로 단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많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만 간주하여 바라볼 때 사회의 잘못된 편견이 발생하며, 이는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이해를 통해 바뀌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신 국적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주해 온 동기도 또한 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어 학습과 함께 한국사회에 진입한다.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전후와 상관없이 한국어 학습은 이들에게 결

1) 여성가족부의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08~12)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이후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09~17)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지원 대상에서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문화와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측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차윤정, 2015: 225).

혼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좋은 유발 장치(trigger)이면서 또한 삶의 전환이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삶의 이야기를 한국어 학습을 통해 들여다보고 한국어 학습이 그들의 삶의 궤적에서 어떤 전환과 적응을 보이는지를 질적 접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궤적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추적한다면 한국사회의 적응과 갈등을 넘어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진정한 사회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선행 연구 탐색

그동안 많은 국내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들어와 겪는 많은 문제들, 가령 언어 문제, 가부장적 질서와 고부갈등에서 오는 충돌, 남편의 가정폭력과 부부갈등 그로 인한 이혼율 증가를 포함한 가족 문제, 육아 문제, 문화 부적응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 왔다(홍선엽 2013; 김민정 2014 등). 동시에 많은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사회, 문화적인 차원의 일방적인 적응의 문제로만 다루어질 때 의도하지 않게 국제결혼이 가진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게 되면서 사회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성찰적 반성도 최근까지 꾸준히 제시되었다(류경혜, 2018).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초기부터 심각한 언어 문제를 경험하지만, 이들을 비주체자로서,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만 하는 적응의 관점에서의 논의는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변화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필연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소통의 문제이다. 앞선 연구들은 이들이 이주와 동시에 직면하는 언어

2) 이 논의는 주로 타자화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이경숙, 2006; 김경희, 2009; 차운정, 2015; 김미정, 2016 등).

소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우선 문화적응의 면에 다루었다. 가령, 한국어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언어능력 혹은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에 유리함을 보여줌으로서 문화적응 문제와 한국어 학습이 상호 영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김이선 외, 2006; 왕한석, 2007; 이은정, 2009; 이수진, 2012 등).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야 하는 만큼, 단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교육이 아니라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동반한 문화적응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논의들도 역시 많다(신영지, 2013; 배재원, 2016; 김철화·조남예, 2017 등).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궤적에 따른 경험으로서 한국어 학습을 질적 접근으로 다룬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현숙(2013)의 경우, 한국어문화 능력 습득을 생애사적으로 기술하였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습득이 삶의 궤적에서 어떤 영향을 갖느냐와 같은 논의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생애사(life history)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질적 방법은 양적 조사를 보완할 수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분석을 적용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에 걸쳐져 있는 사회적 조건 변화의 영향, 사건이 개인에 끼친 영향, 그리고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이동성, 2015; 박성희, 2011, 2016).

3.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

3.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들은 J시내에 살고 있는 접근 가능한 참여자이다. 원래 연구자 중의 한 사람이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평소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결혼이주여성 임성주(가명)를 만났다. 연구자는 임성주를 통해 그와 친분이 있는 이주여성들을 소개받았고, 본 연구에 참여해줄 수 있는지를 물은 뒤 그들의 수락을 얻어 진행하였다. 최초 참여자는 베트남 출신 3명, 중국 출신 2명(조선족 1명), 필리핀 출신 1명, 네팔 출신 1명으로 모두 초등 이하의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었으며, 한국생활이 8년 이상 된 30대의 연령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네팔 출신 이주여성은 1차 면담 후 일자리가 생겨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제외하였으며, 본 연구는 총 6명의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주제 별 논의과정에서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2. 자료 수집과 처리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생애사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각 차시에 따른 주제별 생애사적 질문 목록을 정하여 면담에 임하였다.³⁾ 질문의 목록은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최대한 연구 참여자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강조하며 서술할 수 있도록 맡겼으며(김영천·한광웅, 2012), 연구자는 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다. 면담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 면담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모두가 기혼 여성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면서 라포(rapport)를 형성하였다. 전체적인 면담의 주제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이주하기 전 출신 국가에서의 삶의 경험과 이주 후 한국에 살 때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들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대한 구술이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이 모두 국어교육 관련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

3) 질문 목록은 유선이(2014)를 참조하였는데, 생애사의 전체적인 경험과 주제별 질문이 본 연구의 의도와 대부분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스럽게 미리 준비했던 질문들 외에 관련된 질문들을 추가하기도 했다. 2차와 3차 면담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며, 빠뜨리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재차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진행하였다.

<표 1> 참여자 및 면담 일정

참여자 정보					면담 진행 단계 및 일정			
순번	참여자 (나이)	출신국가	학력	정착 년도	1차	2차	3차	비고
1	임성주(37)	베트남	대재	2007	2018.05.26	2018.06.19	2018.06.27	
2	김은아(32)	베트남	고재	2006	2018.05.24	2018.06.19	2018.06.27	
3	이수아(39)	중국	고졸	2008	2018.06.07	2018.06.19	2018.06.26	
4	김수민(30)	필리핀	대졸	2009	2018.05.27	2018.06.23	2018.06.27	

3. 3. 자료 분석 방법

생애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꿈을 가졌으며 국제 결혼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 후 경험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며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며 살고 있는지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화’와 ‘결혼이주여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애사의 주체인 개인은 주변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생애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삶의 현상과 부딪히며 삶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충분히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는 객관화된 연구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생애사에 대한 전문가이자 연구 주체로서 능동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박성희, 2016; 조금희, 2016). 또한 연구자에게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추

론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적극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도 객관성을 띤 사실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해 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엄명용, 2010: 269).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삶 속에 어떻게 한국어가 습득되어 결혼과 이주의 삶이 전개되었는지를 생애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즉 이들의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태도가 이들 삶에 어떤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이 그들 삶의 전환을 이루기에 충분하며, 이 전환은 또한 한국에서의 삶 속의 적응과도 관련된다 고 보았다.⁴⁾ 그들에게 한국어 학습이란 자신들의 삶의 맥락 속에서 겪은 경험일 뿐만 아니라, 삶을 또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한국인 속에서 살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해야 했으며, 어느 정도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중 언어 교육자 또는 다문화 강사 등 사회적 활동과 일자리 찾기 등을 통해 그에 상응되는 보답을 얻기도 했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이 본국에서부터 이들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었으며, 그 경험 과정에서 이들이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된 삶의 궤적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적응된 삶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 부여로 읽힐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4.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성 확보

본 연구는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4가지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에 기반을 두어 연구의 엄격성을 준수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아무리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해도 연구자의 손에 의해 실

4) 생애사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한 통합적 내용 분석의 틀은 Mandelbaum (1973)이 제시한 것으로, 이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에 적용한 엄명용(2010)을 본 연구에서 참조함.

제로 체험한 삶의 이야기가 옮겨지는 과정에는 무수한 실체적 진실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엄명용, 2010: 271).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는 편견이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실제 연구 결과물인 전사 자료를 기본으로 연구자들이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면담을 하는 도중에 면담 참여자 본인 의사에 따라 진행을 중단할 수도 있고 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원치 않은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한국어 학습과 삶의 전환

결혼이주여성들은 누구나 이주 초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소외 문제에 직면한다. 언어뿐만이 아니라 모국과 다른 사회적 환경, 문화적 차이 또는 의식적인 측면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문제만으로 그들의 삶의 경험을 특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연구의 한계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이 갖는 한국어 학습의 태도나 동기는 그들의 삶에 중요한 전환을 이루며, 이들이 당면한 언어 문제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에 따라 이주에서 겪는 삶의 경험도 다르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우선, 그들의 이주와 관련하여 언어 학습의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4.1.1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 임성주

참여자 임성주는 이주 전 모국에서 흥미로 시작한 한국어가 일과 결혼으

로 이어진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자이다. 임성주는 베트남에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자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며 한국인인 이모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임성주의 이모는 한국 군인을 만나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살면서 자주 베트남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임성주는 일찍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 된다.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호치민 올라가니깐 한국 분 이모부가 있어요. 이모부가 한국 회사에 알바시켜주고…; 그래서 제가 낮에 일하고 저녁은 그 학원 다녔어요. (1차 면담)

한국어에 능숙해지자, 임성주는 베트남에 들어온 한국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가서 통역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친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금의 남편인 한국 남자와 친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는 결혼 생각이 없었다. 얼마 후 그녀는 J시의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며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베트남에서 알던 남편을 다시 만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원래 (남편은) 베트남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제가 통역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친구가 중간에 이제…옆에 이 사람을 많이 아니깐 괜찮다고 붙여주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시집 생각 없었고…근데 그…그냥 이제 J지역에 놀러 왔는데 남편이 이제…전화 왔어요. 점심 사준다고 근데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깐 자기 일하는데 오라고 근데 저는 처음에 일하는데 갔는데 크레인 기산데… 그 크레인 운전 하는 그 모습이 썸 반했어요. ‘썸 사람은 괜찮구나.’ (1차 면담)

결혼 생각이 없었던 임성주이지만 마음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그가 다시 만난 한국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부터이다. 결국 그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었으며, 그 때문에 (통역)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4.1.2 생존을 위한 한국어 학습: 김은아

참여자 김은아는 결혼과 동시에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즉 결혼을 계기로 한국어를 공부한 경우이다. 그는 결혼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국제결혼을 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우연한 기회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

(베트남에서) 제가 버는 만큼 쓰고, 제가 엄마 용돈도 줘요. 많이 못 줘요. 또 먹고살고 힘드니까 안 되겠어요. 같은 동네 언니가 한국 들어가는 언니 있어요. 그 때 한국 결혼하는 언니 많이 없어요. 2005년에 많이 없어요(없었어요). “너 한국사람 결혼할래?”, “그래?” 국제결혼 얘기만 들었고 결혼 해라고 (할려고) 생각 없어요. …(중략)…그 때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집이 가난하면 맘이 아파요. ‘진짜 내 인생도 좀 바꾸고, 내 가족들이 더 좋지 않을까?’ 이 남자는 34. 그 때 제가 20살이에요. (1차 면담)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김은아는 베트남에서 3개월 과정의 한국어를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수준은 ‘지역, 니은, 안녕하세요?’(1차 면담) 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원활한 결혼생활과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존과 관련된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한국어 학습이었던 셈이다.

4.1.3 이중 언어 화자의 체득된 한국어 학습: 이수아

참가자 이수아는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다. 하지만 그녀는 조선족이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한국어를 접하게 된다. 그가 살았던 곳은 길을 중심으로 한족과 조선족 마을로 나뉘었는데, 집안에서 부모님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길 건너 한족이 사는 곳에 가서는 중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참가자는 이중 언어의 환경에 처음부터 노출된 것이다.

뭐라고 해야나...예전에 중국에서도 한국말...조선족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족이 아니고 중국의 그 소수민족 있잖아요. 중국에 소수민족 있잖아요. 그러니깐 중국에 소수민족끼리 한 마을이 있어요. 이케...한족은 92프로 된다고 하면은 소수민족은 한 8프로 돼요. 그 소수민족 중에 제가 조선족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말(한국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체가 습관이 되어서 그냥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한국말이 편해서 하다보니까...외관상으로도 봤을 때는 동양인이잖아요. (중국에서) 편의점 가거나 식당가거나 하면 중국집 있으면 거기 가서 (중국어로)이야기 하고, 길이 이렇게 되(돼)었다고 하면 이쪽은 조선족 마을이라고 하면...이쪽은 딱 한족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상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집에서 엄마는 한국말을 하고 아빠도 한국말을 하니깐 세뇌는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1차 면담)

그녀는 조선족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이 학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학교 선생님들도 조선족 출신이며 수업은 한국어로 하고 중국어는 제2 외국어처럼 기본으로 배우게 된다. 즉 최적의 이중 언어 환경인 셈인데, 이 언어 환경은 이수아가 한국을 선택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게 하였다. 그 당시 조선족 마을 사람들은 보통 한국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수아의 경우 가난한 집안 환경 탓도 있었지만 어느 조선족처럼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부모님은 좋아하셨다고 한다.

4.1.4 영어 화자의 소극적인 한국어 학습: 김수민

김수민은 결혼 당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한 뒤 비로소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다. 그녀는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전 한국 남편과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결혼 이후 다문화 센터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어 학습에 입문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주 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처음엔 한국(어) 공부했을 때는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국어 공부했을 때는 사실은…공부 (열심히) 안했어요…(웃음) 아니…(공부하러) 가는데… (한국어 공부하는 다문화 센터) 다른 사람 필리핀 사람이 만났어요. 같은 고향 아니라도 같은 필리핀 사람이니깐 같이 이야기 하고 끝나면 밥 먹자(웃음). (2차 면담)

그녀는 한국에 정착 후에도, 같은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이야기 하고 같이 어울려 밥을 먹으러 다니는 것이 편했다. 특히 집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당장 배워야 한다는 절박함은 없었다.

4.2. 삶 속의 적응

결혼이주여성의 삶은 결혼 후 이주와 함께 가정을 형성하여 아이를 키우고 많은 경험을 통해 적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들의 적응 과정은 네 가지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첫째,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자인 임성주는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삶으로, 둘째, 생존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인 김은아는 차별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으로, 셋째 이중 언어 화자의 체득된 한국어 학습자인 이수아는 드러내지 않는 삶으로, 넷째, 영어화자의 소극적인 한국어 학습자였던 김수민은 가정을 이끌며 안정적인 삶으로 적응했다.

4.2.1.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삶: 임성주

4.2.1.1 연애결혼, 힘든 시집살이

임성주는 연애결혼이었다. 잠깐 들른 한국에서 크레인운전하는 남편의 모습에 반하게 되고 그녀 나이 27살에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된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여느 한국 여성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시집살이로

시작되는,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속에서 그는 맡여느리었으며,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느 한국 여성들의 시집살이를 겪기 때문이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고부 갈등이 더욱 심했는데, 자기고집이 강하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불같이 화를 내는 시어머니와 성격상 전혀 맞지 않아 마음고생을 했다. 그녀의 능숙한 한국어가 더 힘들게 했고 때로는 차라리 한국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한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걸 다 듣고 있자니 그녀는 속이 터졌다.

어머님이 너무 자기 생각만 얘기했었고…또 나이 많아서 살았던 환경도 다르고 하니깐…썩 원래 강해요. 강한 분. 근데 그 만약에 기분 나쁘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다 화를…그때그때 다 풀어. 화를. 그래서 저는 인제…원래 말은 안하잖아요. 상대방 싫어해도 저는 아무 말 안하고 그런 스타일인데…처음에 그 성격상은(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맞았어요). 그래서 전 너무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진. 제가 한국말을 너무…그때 이런 생각했었어요. ‘차라리 내가 한국말 모르면…’ 못 알아듣고…근데 저는 다 알아들으니깐 속이 터져요. 막. (1차 면담)

다행스럽게도 말을 예쁘게 하는 시누이들은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위로도 해주고 이것저것 사다주며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4.2.1.2 여러 가지 일과 돈벌이

임성주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잠시 주춤했던 일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어가 이미 수준급이었던 그에게 한국에서 일을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 덕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녀는 건축회사에서 통역 일을 했으며,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통역 봉사활동도 하고 다문화 강사로도 활동했다. 특히 다문화 강사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자녀들에게 인정

을 받는 일이 되었다.

저는 경아가(딸에게) 학교 간다 했을 때 완전 좋아했어요. 제가 가면서 선생님 인사도 하고 선생님들도 어…“여기 다문화 강사선생님인데, 우리 학교 학부모님이에요.” 선생님들 좋아하고 그리고 요즘은 그 학교에서 반마다 다 문화 애들 있어요. 꼭 한두 명 씩 있어요. 베트남 애들도 있고…어제(는)…제가 베트남 옷 보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수업 했어요. (1차 면담)

4.2.1.3 다시 시작한 공부

임성주는 아이를 키우며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학업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대학 진학에 좌절한 경험이 있으며 재수를 준비하다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공부는 못다 이룬 꿈이었다. 드디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J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대학생활에) 지금 좀 만족해요. 만족하고 저는 그냥 처음에 대학교 안 나왔다는 점에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계속 “다닌다고… 다닌다고…” 말만 했었고 계속 어디 가도 ‘대학교 가고 싶다.’ 저는 친구들이 저 또래 친구들이 다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저만 안 나와서…이번에 학교 들어가니까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원래 15학번이에요. 근데 이년 동안 휴학 했었고, 남편도 얘기 때문에 어쩐다…어쩐다…그래서 못 다니고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했잖아요. (1차 면담)

시어머니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지, 여자가 무슨 공부냐’라고 편잔을 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한다. 다행히 학비는 베트남에서 벌고 한국에 와서도 벌어서 놓은 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지금은 국적 뺐는데…저는 지금 국적은 바꿨는데…근데 외국인은 아무리

잘 해도 수능 시험 볼 수 없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깐…한국어 능력시험으로 어느 정도 합격하면 언어가 되니까 입학해줘요. 입학지원은 제가 애들 키우고…힘드니깐 일을 하면서 대학교 학비 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그 동안 일했던 몇 년 동안 일했던 거 모아서 학비 댈라고(대려고) 모아놨어요. 근데 저는 항상 자기가 해는 거(해야 하는 것) 있으면 스스로 하고…저 어머니가 돈 좀 있는데 지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제(가) 학교 다니 거 몰라요. 그리고 학교서 일 한다고 저는 베트남…언어교육부에 베트남학생 통역 해주고 그 다음에 일한다고 알바 한다고 그냥…(그렇게 말했어요.) (1차 면담)

임성주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도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고 한다. 공부를 해야 좋은 직업을 갖게 되고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그녀는 자녀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하기를 원하며, 자신 또한 대학원 진학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에게 학교와 일은 병행되는 일이다.

4.2.2 차별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 김은아

4.2.2.1 만족하는 결혼

김은아의 결혼은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소개받은 남편의 첫 인상은 잘 생기고, ‘젠텔’했으며, 남편도 김은아의 인상을 ‘반짝반짝 빛났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에 데려가 인사시켰던 것이다.

(남편과의 결혼은) 좋아요. 왜냐면 대만은 언니들이 나이 많은 신랑하고 결혼하고…(했기 때문에), 엄마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바로 허락하고 그리고 윤아 아빠도 굉장히 잘해요. 가서 엄마 용돈도 주고…뭐 조카, 올 동네 애들은…(하고) 베트남은 더럽다. 징그럽다. 드럽다. 하지 않고 잘 지내해요.(잘 지냈어요.) ‘아, 이 남자가 잘난 척 하지 않는다.’ 나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 더럽다

(고) 안하고 잘 먹고, 말은 안 통해요. 근데 항상 저를 손잡고 다녀요. 저를(는) 부끄러워 죽겠는데 자기는 “아니야, 가지마.”라고 해요. 저보고 항상 가지마라고 해요. 화장실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가는데 “남자 화장실이야. 앞에서 기다려.” 엄마 아빠한테 잘 해주고 이 남자 다 좋아요. 언니들 다 좋아 해요. 이 남자 잘난 체 하지 않고 음식도 잘 먹고… (1차 면담)

잘난 척하지 않고 베트남 사람을 더럽다고 안하고, 무엇이든 잘 먹는 남편에 대해 그녀의 가족들은 좋게 생각했으며, 결혼 후에도 그녀는 남편에게 100점을 주고 싶어 한다.

(방송통신학교를) 주말에…(다녀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은) 집에서 들고, 지금 3학년 올해 졸업해요. 대학은 무역학과…(에 가고 싶어요.) 현재 임성주는 사회복지(학과에) 나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안 맞아. 저는 무역학과해야 (가야) 공중보육 개인 사장도 되고 사업도 되고, 아무튼 내가 그 성격은(은) 급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혼자 개인사업 하고 싶어요. 남편(가)이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저렇게 운전도 남편이 가르쳐줬어요.(가르쳐줬어요.) 사람들 얘기는 남편(이) 운전(을) 도와주면 이혼한대요. 왜냐면 사웠기(싸우기) 때문에… (운전배우는 교육비가) 60만원 50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 돈 주고 배울래?” 얘기 키우는 입장이라서 돈은 아까워서 “그냥 가르(쳐)줘라.”(했어요) “자기, 근데 뒷 차 안보고 후진? 후진?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끝까지 가르쳐주고…, 결혼은 자격증도 가르(쳐)주고 따고…(웃음). (삶의 만족도는) 100점이에요. 근데 가끔 100점만 사람,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현재 99점만 하라도 만족합니다. (1차 면담)

한국에서 그녀의 남편은 베트남에서 미처 마치지 못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운전도 가르쳐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김은아가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원래부터 다정한 성품을 지닌 데다 베트남 사람들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던 남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2.2.2 무시와 차별, 더 적극적 방어

한편 김은아는 결혼과 함께 한국어를 학습해야 했는데, 결혼 초기 직면한 언어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족들이 크게 협조하지 않았던 사실을 토로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가 사용하는 한국어 문장 중 틀린 문장을 바로잡아 주지 않고 오히려 바보라고 하며 비난했다는 말을 한다.

그 때(결혼 후) 시어머니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그 때 U 지역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사투리...어머니는 고향은 C 시인데 20년, 30년 살았어요. 그래서 와서 틀리면 틀리다고 다시 가르쳐주면 되는데...운아 아빠 말 안 해요. “가르쳐주세요.” 근데 “가르주세요.”(라고 발음 하는데), 안 고쳐주니깐. “밥 요리해요.” 틀리다면 다시 가르치지(가르쳐주지 않고) 얘기 안 해요. “너 바보 아니야?” (1차 면담)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한국어 학습과 소통이 좌절되는 상황에서 체념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히 맞선다. 김은아는 비문을 사용하는 자신에게 남편이 ‘바보’라고 말하자, 한국어를 잘 못 하는 자신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남편의 태도가 더 나쁜 것이라고 항변하고 제대로 알려줄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진짜 내가 바보야?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먹는 거부터 배워야 해. (1차 면담)

한편 김은아는 시어머니가 ‘어디 가면 가만히 있으(어)라’는 당부 말을 듣게 된다. 그녀의 한국어가 외국인 며느리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가만히 있다면 한국어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을 정립한 후, 남편과 다른 선생님 등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도한다. 그리고 남편은 일하고 와서 피곤해 하고, 다문화 센터의 선생님은 학생들이

많아서 늘 대화상대가 되어 줄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게 된다. 이주 초기에는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로 인하여 주위에 마음을 닫았던 그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한다. 이후 버스 안에서 만나는 할머니와 대화를 시도하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깎는 것 등을 시도해 보면서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저보고 왜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말을 하면...왜냐하면 딱 말하면은 “너 외국인이구나? 어디 살아?” 계속 그 사람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거 알아요. 택시 타거나 그쵸. 어디 가면 딱 외국인이라고 하면 딱...“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결혼 했어요? 애기 있어요? 신랑 무슨 일 해요?” 대충 물어보거나...무시한 느낌을 들었고, 아니면 떡집 아줌마도...아 무시 느낌...아니고 신기하다는 느낌이라고 하나? 제가 지금 아는 세탁소 언니가 신기하다고 해...외국인 무섭다고 해요. 외국인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언니야, 나는 외국인이지만 언니랑 똑같이 먹고 살아 내가 언니 안 잡아먹어. 걱정 마. 궁금하면 물어도 되고...그 무섭다. 하지만 내가 언니랑 똑같이 좋아해.” 언니가 말 항상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아! 기분 나빠! 그냥 5천 원, 만 원 내가 알지! 언니 편히 말해. 내가 모르면 물어 볼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어? 꼭 안 그래도 돼. 내가 모르면 내가 물어 볼게.”
(2차 면담)

이처럼 김은아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차별과 무시를 느꼈으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이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된 뒤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을 감내해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은아는 이러한 한국인의 모습에 대해 한국어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국의 삶 속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4.2.2.3 변화된 삶

결혼과 함께 한국어를 학습해야 했던 김은아는 한국에서 돈을 벌며 베트

남에도 보내주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식당에 가서 일하면 무시 받는다.”라고 하며 반대한다. 한국말이 충분히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시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남편이 식당 일을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딸이 18개월쯤 되었을 때, 식당에 다니고 싶어 하는 그녀에게 남편은 “당장 내일 윤지 어린이집 보내고 당신은 다문화센터 가서 공부하고 와.”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기보다 맛벌이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웠다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센터에 가서 한국어 열심히 공부해라. 배우고 싶으면 얘기해라.”라고 말하는 남편 덕분에 그녀의 삶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갖게 된다.

김은아는 처음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남편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등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

(한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 똑똑지(똑똑한지) 몰랐다.’(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공부 못했으니깐…맨날 직장 다니고…저는 활발 하는데 근데 공부 못했으니까. 근데 신랑가(이) 다해주잖아요. (나는) 중학교만 졸업했고 근데 “고등학교 (다니고) 싶어. 어떻게 다녀야할까?” 우리 신랑 항상 신랑가(이) 알아봐 준다고…학교 알아봐 주고…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는…왜냐하면 학교 다녀도 방송통신 고등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1차 면담)

김은아는 자신이 공부를 계속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그녀는 배우자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가면서도 이 일이 결국 장래를 위한 일임을 분명히 한다. 김은아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생각과 ‘지금 공부를 해야 나중에 경제적인 책임을 질 상황에 대비한다.’는 그의 생각이 부딪혀 나타난다. 결국 그녀는 학교 공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앞에서 당당히 학교에 간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은아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공부와 장래에 대한 당당함은 초·중·고 아이들에게 베트남, 중국 등 자신의 문화를 알리는 다문화 강사의 활동으로도 이어진다.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랑 계획 세우고 “안녕하세요?” ‘선생님’가(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윤아 엄마, 윤지 엄마라고 해요. 베트남 선생님이라고 해요. 신짜오.” 베트남말로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담임 선생님이(이) “윤아 엄마예요. 윤아, 윤지 학부모님이예요.” 그 때부터 “윤아, 윤지 엄마는 선생님이야.” (1차 면담)

김은아는 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도 역시 돈이 생기는 일이다. 안정적인 정착 후 그녀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부터 처음 베트남에서 왔을 때 ‘맨날 아들 돈 받아쓰고 하니까’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며, 집안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된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로도 쓰고 빚도 갚고 베트남에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4.2.3 한국에서 드러내지 않는 삶: 이수아

4.2.3.1 희생 · 인내 · 노력

조선족으로 태어나 조선족 마을에서 자란 이수아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부모님도 자녀도 한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고 유학도 하고 결혼을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크게 어려울 일이 없었다. 특히 언어 자체가 돈벌이와 관련된다는 의식은 다음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들이 보통 외국으로 많이 나가셨어요. 왜냐면 돈벌이가 많이 되니깐 한국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 오면은 집 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엄마 아빠들은 한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원하는 거는…일본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어가 기초가 되(똥)있으니깐 그래서 한국대신 일본으로…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저희 때 친구들은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애들은…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 겸 돈 벌로 가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도 계시고…거기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저희 시골 가정 형편이 그래서…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고…저희 엄마 친구들도 거의 다 (외국에) 나왔어요. 에…친척들도 다 나오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거 같아요. (1차 면담)

이수아는 한국으로 시집오자마자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어머니가 아이들의 잘못을 감싸주는 데서 오는 의견의 불일치 외에는 적응에 큰 문제는 없었다.

저는 올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지금까지도…한국 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면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저도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포옹(포용)을 많이 해주세요. 어쩔 때는 애들 잘못하면 뭐라고 할 수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건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혼내냐고 그런 거 빼고는 지금까지 잘 지내 왔어요. (1차 면담)

그녀의 남편은 인상이 믿을만하고 과묵한 편이었다. 그녀가 한국으로 시집왔을 때 시누이와 조카까지 함께 사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의 남편은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던 데에는 이수아의 희생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성격이 큰 영향을 미쳤다.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십년이지만 우스개소리로 하지만 그 당시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러저러한 사건으로 따로 못

살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남편도 많이 저한테 맞춰주고 저도 남편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이어 왔지만은 참…그게 힘들더라고요. 한 명 두 명이면…원래는 제가 여기 온 것도 남편이랑 잘 살라고 왔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조카들 맞춰줄라고 온 것도 아니고…근데 어쨌든 조카도 맞춰줘야 되고 아버님도 맞춰줘야 하고…어머님도 맞춰줘야 되고…우리 신랑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1차 면담)

이수아는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의 위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고 나이가 많은 적든 일단 자신이 양보하고 맞춰주기만 한다. 가족 내에서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일단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4.2.3.2 차이의 실감 그리고 일 찾기

이수아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 와서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한국인 남편과의 대화에서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있거나 처음 와서 많은 한글로 된 광고판을 볼 때는 새삼 생소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에도 사투리가 있듯이. 더군다나 저는 조선족이니 말이 다른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말이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같이 살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쟈 처음에 신랑이랑 한국에 딱 왔는데, 고속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한글을 광고판이나 간판을 봤어요. 저는 느낌에 북한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느낌상으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아…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면담)

하지만 그런 차이는 한국에서 의사소통을 저해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녀는 따로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지 않으며, 곧바로 일을 하는 쪽을 선택한다.

다문화센터에서 보면은 한국어 공부를 위주로 많이 하더라구요...그게 위주...그리고 활동 위주... (그래서)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밖에서 다른 걸(일을) 알아보고...하는 거죠. 근데 다 대신 힘든 일 쪽으로 알아보는 거죠...(중략)...(요양보호사의 일은) 관심은 없었는데...일이 있어가지고(있다고 해서)...집에서 쉬고 있었는데...다문화 센터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차피 느느니 한번 해보자 해서... (1차 면담)

조선족 특유의 억양이나 어휘는 여전히 이수아를 선주민과 구별 짓게 하는 표지로 작용했지만, 한국어가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김은아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모국어 화자 수준은 아니었던 임성주에 비해, 이수아의 완벽한 이중 언어는 한국 정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결혼 직후부터 곧바로 다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가 들어왔고 그 덕분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기간 역시 다른 참여자들보다 많이 짧았음을 알 수 있다.

4.2.3.3 티 안내고 조용히 살기

이수아는 다른 결혼이주여성들과는 달리 자신이 결혼이주여성임을 드러내지 않고 싶어 했다. 자신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외모도 비슷하고 한국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말투가 한국 사람들과 달라 조선족 출신이라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그들과 쉽게 어울려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마음 속으론...자식을 위해서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난 한국인이라고 받아들이곤 있는데 그게...여기서 한국에 왔으니깐 이제 한국 사람이라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맘대로 잘 안 되더라구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꺾다 보면은 제 말투를 듣다 보면은 이제...이분은 다른 곳에서 오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때 물어보면 제

가 얘기를 해주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언어 차이가 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1차 면담)

심지어 그녀는 자녀들에게까지 중국(조선족)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 외모나 언어는 똑같은데 엄마의 출신을 알고 있으면 자녀들이 자라는 데 영향을 받을까봐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제…그런 건 있죠. 얼떨결에 내 나라 중국이라고 외국이라고 이야기 하면은 애기한테 영향을 미칠까봐…왜냐면은 이제…애기도 얘기는 원래 다 똑같아요. 근데 엄마가 다른 나라 왔다고 해가지고 뭐 영향 받을까봐 태어나서부터 이야기 안했어요. 느낌은 있지만…거의 이제 똑같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향 안 주기 위해서 말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애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1차 면담)

그는 자녀들이 평범한 한국 아이들처럼 자랐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엄마의 출신 배경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커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이수아의 조용히 티 안내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녀 교육관에도 드러난다.

저는 그냥…엄마 영향을 받지 않고 저는 좀 조선족이라고 그나마 괜찮지만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온 분들은 저보다 더 심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어느 나라에서 왔다 안하고 그냥 평범하게 자라면 그게 제가 소원이거든요. 왜냐면은 괜히 “너희 엄마 어디서 왔어? 뭐 어찌고…너는 뭐.” 선생님도 티비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예요? 저도 평범하게 똑같이 크고 똑같이 친구 어울리고 그런 바람이에요. (1차 면담)

자신이 중국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한국 사회에 조용히 섞

여 들어가는 삶을 추구한 것처럼, 이수아는 자녀들 역시 평범하게 한국사회에서 표 나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이수아는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들이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겪게 될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최대한 지우고 침묵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4.2.4 가정을 이끄는 삶: 김수민

4.2.4.1 준비 없는 결혼, 후회와 체념

김수민은 필리핀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보석회사에 다니셨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된 다음 시골로 이사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하지만 공부를 잘 했던 그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업하게 된다. 야근과 많은 업무에 지칠 때 쯤 한국 사람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놀다 오자는 친구를 따라 가게 된다. 그러나 알고 보니 결혼정보업체였고 실제 면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물론 그는 즉흥적으로 친구를 따라 왔기 때문에 그저 면담에만 응했는데 사일 후에 그를 (신부로) 선택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그녀는 결혼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남자에게 만일 결혼을 하고 싶다면 두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짜 약속대로 지금의 남편이 찾아온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야기 하고 영어도 하고 자기는 시골에서 산다고 자기는 농사한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이렇게 하고 무슨 꿈 있고 이런 거 하고 근데 저는 결혼한단 이야기는 사실은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냥 만나고 생각 안 해봤어요. 가지고 이제 만나고 집에 가는데 '나는 아니겠지? 나는 선택 안하겠지? 나는 결혼도 생각 없는데?' 사일 후에 연락 온 거야. 선택한다고 결혼한다고. (1차 면담)

그녀는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면서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후회가 밀려오게 된다. 따뜻한 나라(필리핀)에서 온 그가 한국에서 맞닥뜨린 것은 추운 겨울의 임신이었다. 더구나 봉어빵을 팔기 위해 그녀는 남편을 따라 다녀야 했으며, 시댁 삼촌 집 좁은 방 한 칸을 얻어 이사했는데 첫 아이를 낳고 필리핀에서 친정 아버지가 오셨을 때 못 사는 모습을 보여서 미안함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민의 이야기에서 결혼의 선택과 후회는 매우 자주 등장한다.

제가 한국에 와서 바로 임신 했어요. 즐기기도 못하고 모르고...그래서 저는 결혼 대해서는 아직 준비 안 된 거... 근데 저는 아직 원하지 않았어요. ... (중략)... ‘어렸을 때도 부모님도 농분데 왜 내가 결혼했을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우리 남편 결혼했을까? 우리 남편을 선택했을까? 필리핀 사람 (과) 결혼 했으면 (괜찮은 사람들) 만났을 거야. 다른 사람 만났을 건데.’ 사실은 좀 ‘뒤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젊는데 왜 결혼했냐고... ‘내 팔잔가 봐.’ 에에... 우리 남편이 돈 없고...우리 남편 장사했었어요. 계란빵 장사. 내가 선택했지? 후회 했을 거예요(했어요). 왜냐면 이런...그리고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사(싸)우기도 많이 저도 사(싸)웠어요. (1차 면담)

그러나 김수민은 모든 것을 자신의 팔자 탓으로 돌리면서 현실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실의 순응과 체념은 필리핀에서 가톨릭 고등학교를 다녔던 그의 신앙심이 바탕이 된 듯하다. 영어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그는 한국어로 된 교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

필리핀에서는 영어로 쓰면 (성당에서 영어를) 그대로 써요. 저는 I성당에서 다녀요.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영어미사가 있어요. J성당이. 근데 우리가 동네는 I성당. 근데 우리 딸은 3학년이라 첫영성(체)? 너무 힘들어요. 교리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딸을 가르쳐줘요. (1차 면담)

김수민의 운명에 대한 순응적 태도는 그가 남동생이 기사 시험을 합격하지 못할 것을 설명할 때 ‘아마 하느님 뜻이 아닐까’와 같이 생각하는 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4.2.4.2 가정을 이끄는 삶

한국에서의 그의 삶은 순응과 체념 속에서도 사업에 실패하는 남편에게 조언과 격려를 해주며 영어 수업으로 돈을 벌면서 오히려 가정을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그의 높은 학력(대학 졸업)과 신앙심 그리고 영어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일은 돈벌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집 근처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남편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남편이 봉어빵 장사를 그만 두고 분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역시 장사가 잘 되지 않았으며 인력시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나마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녀의 고민이 컸다. 이 때 김수민은 남편이 잘하는 ‘운전’과 관련된 일을 권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냐? 그니깐…당신이 잘하는 거를 찾아야 되고 당신 성격이 너무 이러기 때문에 장사는 안 돼. 그래서 당신 운전 잘 하면 그냥 운전해.” (그래서) 기사를 했어요. 회장님 기사. 일단은 회장님기사. 집 근처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중략)…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고만 됐어요. 고만 됐는데 그 회장님이 “고만두지 말고 우리 회사를 들어와라.” 레미콘으로. 레미콘 회사 들어갔는데 자기도…그럼…제가 또 말했죠. “당신이 레미콘 해.” 근데 옛날에 자격증 했대요. (레미콘 회사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래서 빌라로 이사 갔어요. 빌라 끝나고 2년 아파트로 이사 갔고… (1차 면담)

그 덕분에 집안의 경제는 점점 풀려 이제는 아파트 두 채를 연결하여 살고 있으며 아파트 임대 사업도 함께 할 정도가 되었다. 현재 그녀 남편은 고

속버스 소속 기사를 하고 있으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온다. 이 때문에 두 돌 된 어린 아이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세 명의 어린 아이들을 대부분 그녀가 혼자 돌보고 있다. 물론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그의 몫이다.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딸이 무용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기를 바라지만 중간에 포기하려고 할 때 어김없이 그는 조언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렇게 가정의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전적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남편이는 남편이 “알아서 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더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 왜냐면 제가 만약에 안하면 우리 남편 또 모른(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야...(라고 해요.) (1차 면담)

따라서 그녀는 계속 영어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유치원비, 학원비를 걱정한다. 만일 그녀가 영어 수업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공장이라도 다녀야 한다는 염려를 많이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쵸. 근데 이제...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후에는 대학교 가야 쫓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영어 수업도 못하고 하면 걱정돼요. 그럼...‘나는 이제 저기서 다녀야겠네. 공장에서 다녀야겠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1차 면담)

이처럼 김수민은 필리핀에서 결혼에 대한 준비가 없었고 또 한국어도 전혀 모르는 채 한국에 정착했지만 가정을 이끄는 삶이 된 것은 그가 가진 능력과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의 성원이자 이주민으로서 주류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문제가 삶의 적응에 어떤 전환점으로 작용하는가를 생애사 방법을 통해 탐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학습이 이들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려 있으며 한국에서의 삶의 경험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그 결과 1) 자발적인 한국어 학습자인 임성주는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삶으로, 2) 생존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인 김은아는 차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변화된 삶으로, 3) 이중 언어 화자의 체득된 한국어 학습자인 이수아는 드러내지 않는 삶으로, 4) 영어 화자의 소극적인 한국어 학습자였던 김수민은 가정을 이끌며 안정된 삶으로 적응해간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이들 삶의 경험양상이 다양함을 보여주며, 이들의 언어 능력이 이들이 선택하고 개척하는 삶의 방향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정착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특히 이중 언어 화자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등 개개인이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베트남 출신 김은아의 생애사는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과 문화적용 간의 상호 연관을 밝힌 기존의 연구들과 부합한다(김이선 외, 2006; 왕한석 2007; 이은정, 2009; 이수진, 2012 등). 김은아 역시 한국어가 능숙해지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속도도 빨라졌으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당한 대접이나 편견어린 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구심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임성주나 이수아의 생애사 역시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적응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해 준다. 두 사람 모두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고 더 나은 보수를 받으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편, 임성주의 경우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질 만큼 선주민들의 차별적인 언설들을 감내하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음도 주목하게 된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이수아 역시 조선족이라는 자신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최대한 숨기고 싶을 만큼 선주민들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이들의 부정적 경험은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능숙한 한국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을 재확인하게 한다.

이주민을 타자화하고 차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류 사회 선주민들에게 이주민들이 구사하는 독특한 억양, 어휘, 문법 등은 그들을 언제든지 구별짓게 하는 손쉬운 표식이 된다. 박경용(2015)이나 신정아·한희정(2016)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조선족의 사투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이주민들마저도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임성주나 이수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학습 못지 않게 주류 사회 선주민들이 한국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어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동시에 한국어 역시 지속적으로 분화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한다. 그런데 주류 사회는 한국어를 ‘현대·남한(서울)의 것만으로’ 특정하고 그 외의 한국어,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 출신의 이주민들이 구사하는 한국어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지금까지 다문화·다언어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언어적·문화적 타자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수용을 중점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조선족 출신으로 자신의 언어적 정체성을 철저하게 숨기고자 하는 이수아의 경험담은,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가 세계 속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주류 사회가 이주민이 구사하는 다른 형태의 한국어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게 돕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장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2015.
- 김경희, 「텔레비전 뉴스 내러티브에 나타난 재한 이주민의 특성-뉴스초점 이주민과 주변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3, 2009, 7-46면.
- 김동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 김미정,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결혼 이민자의 여성 타자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3, 2016, 5-29면.
- 김민정(2014),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고부갈등 경험: 중국, 베트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시부모와의 동거경험을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영천·한관용, 「질적 연구방법으로 생애사연구의 성격과 의의」, 『교육문화연구』 13-3, 2012, 5-43면.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 여성개발원, 2006.
- 김철희 · 조남예,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문화 경험 연구」, 『韓國思想과 文化』 86, 2017, 431-450면.
- 류경혜, 「한국의 다문화」, 『비교법학』 29, 2018, 3-21면.
- 박경용, 「중국 칭다오 조선족의 정착 애로와 딜레마」, 『로컬리티 인문학』 13-4, 2015, 211-262면.
- 박성희, 『생애사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 원미사, 2011.
- 박성희, 『질적인 생애사 연구방법론』, 박영스토리, 2016.
- 배재원,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3-1, 2016, 57-77면.
- 신영지, 「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학교육의 가능성 모

- 색], 『반교어문연구』 35, 2013, 279-408면.
- 신정아·한희정,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으로 살아가기」, 『한국소통학보』 15-3, 2016, 235-282면.
- 엄명용,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010, 261-298면.
- 왕한석 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및 문화적응 실태 연구: 진라북도 임실군(및 순창군·남원시)일원 사례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2006.
- 왕한석, 『또 다른 한국어-국제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 (주)교문사, 2007.
- 유선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경숙, 「혼종적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포섭된 ‘이산인’의 정체성<러브 인 아시아>의 텍스트 분석」, 『한국방송학보』 20-3, 2006, 239-276면.
- 이동성, 『생애사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2015.
- 이수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문제와 한국어 학습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은정,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 지현숙, 「도시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문화 능력 습득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어문논문』 41-4, 2013, 383-403면.
- 조금희,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찾기” 생애사 연구: 로젠탈의 내러티브 분석 접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차운정, 「한국 생활의 경험과 결혼이주여성의 언어 의식 변화」, 『코기토 (Cogito)』,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223-251면.
- 통계청(2018), 각 연도 통계자료실. www.nso.go.kr.
- 홍선엽, 『베트남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Kang, Mi Ok, *Multicultural Education in South Korea*, New York:

Routledge, 2015.

Guba, E. G., & Lincoln, Y. S.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bl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1981.

Mandelbaum, D.G,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973, 177-206.

Sohn, Bong-gi & Kang, Mi Ok, Bilingual Womanhood and Politics of Multilingual Education in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in Toronto, Canada, 2019.

【Abstracts】

A Study on Marriage Immigrant Women's Life History Regarding their Korean Language Learning

Choi, Eun-Kyung·Lee, Jeong-Ae·Kang, Mi Ok

This study explored the life histories of four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rom China (Korean-Chinese),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nd traced the ways in which their motivation and attitude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have influenced their marriage and settlement in South Korea. Four aspects were found: (1) Voluntary Korean learning (Vietnamese), (2) Korean learning for survival (Vietnamese), (3) mastery level of Korean as a Korean-Chinese bilingual, and (4) passive Korean learning as a fluent English speaker (Philippina). Participant (1) used her Korean language skills to materialize her unfulfilled dreams. On the contrary, participant (2) had very limited Korean skills and experienced much discrimination in her daily life at the very beginning of marriage. As she became fluent in Korean, she has made many positive changes in her life and is very satisfied with her current life. Participant (3) silenced her Korean-Chinese identity and tried to be assimilated to Korean society using her fluent bilingual skills. Participant (4) strategically used her English skills to navigate South Korean society and managed her life successfully despite limited Korean skills. These findings give suggestions to those who pursue a multicultural society that values mutual understanding with migrants and builds up empathy among people.

Key Words : Life history, Korean language learning, life transition,
accommodation in life, life experience

이 논문은 2019년 06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